

언약을 후대에게 각인시켜 뿌리내리는 교회

이사야 59:21, 에베소서 3:17-19

최정웅 목사님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란다.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복음 안에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 엘리(乙未)년을 보내고 병신(丙申)년을 맞게 된다. 송구영신의 예배다.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표를 향해 달려왔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행복하고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프고 아픈 일도 없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랫말 가운데 그런 것이 있더라. “세월아, 너는 어찌 돌아도 보지 않고 가느냐. 고장난 시계는 멈춰 서는데 너는 어찌 고장도 나지 않느냐.”

2015년에 우리는 각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온 교회가 원니스가 되어서 달려왔다. 태영이부, 유치부, 어린이부, 종교등부, 대학청년부, 정말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 볼 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그들 속에 심겨진 이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힐 날이 꼭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면서, 그들의 가슴 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되었을 것을 믿는다. 이미 우리가 응답을 받았지만, 또 계속해서 맞고 사역을 해야 할 것이 각인 운동이다. 그 이유를 나중에 밝히겠지만, 세상과 사단은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다른 것을 자꾸 각인시키려고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시도하기 때문에, 침략해 오기 때문이다. 복음을 잊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자신과 후대에게서 복음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는 전쟁이다. 이 응답을 발판으로 삼고, 2016년에 우리가 새로이 반야아 할 응답은 복음의 뿌리가 내리게 하자는 것이다. 각인되어가지고만 안 되겠다. 아주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다. 어떤 유혹이 와도 지워지지 않고 희미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각인이라 한다면, 뿌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2017년은 창립 50주년의 해가 된다. 앞으로 1년 남았다. 종교개혁 500주년이기도 하다. 이 해년의 해에는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도록, 2016년에는 정말 뿌리를 든든히 하고, 열매를 얻을 그릇을 준비해서, 풍성한 응답을 받게 되어야 하겠다. 가정, 개인, 영혼마다, 우리 교회와 민족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한다.

1. 언약을 뿌리내려야 할 이유

첫 번째로 언약을 후대에게 각인시켜 뿌리내리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환난을 이길 뿐 아니라,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끝없는 유혹과 미혹과 환난이 우리를 엄습해 올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에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하려면, 뿌리가 깊지 않으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우리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함이다. 용비어천가 중에 이런 대목이 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니, 꽃이 좋고 열매를 맺었다.” 잠언 12:3에는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고, 잠언 12:12에는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고 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결실하기 위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뿌리가 견고해지는 한 해가 되자는 이야기다.

(1) 첫 번째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면, 이미 와 있고, 앞으로 더 크게 오게 될 위기와 환난을, 또 유혹과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이다. 손녀에게 내가 물어보았다. 7살 때 복음소식을 다 암송했었다. “혹시 다 잊어버렸니?” 물어봤다. 그랬더니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50프로는요.” 절반을 벌써 잊어버린 것이다. “내가 상급을 줄 테니까 다시 암송해 봐라. 각인시키는 해 아니냐. 각인시키고 뿌리내려야 한다.” 그래서 다시 했는데 썩 잘 했다. 명이에게도 이야기했다. 상급을 아직 못 쫓는데, 했는지 모르겠다. 했으면 잘 것이다. 확신을 아직 못 했는데, 잘 안 된다고 하더라. 한 70퍼센트는 기억한다고 했다. “100% 네 마음속에 담기도록 다시 암송해라.” 요즘 보니까 눈빛이 다시 영롱해졌다. 다시 물어보면 당당히 대답하리라 생각된다. 금방 잊어버린다. 아이들이 중학생 쯤 되면 써그리 잊어버린다. 그래서 지금, 태영이부 때부터 계속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게 하지 않으면, 어느 날 바람이 불고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면 휘둘러 버린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 정말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 풍파가 닦쳐올 때 뿌리가 제대로 내려져 있지 않으면 통째로 뽑혀 날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뿌리가 제대로 내려져 있다면 태풍이 와도 괜찮은 것이다. 단적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 한국이 지금 경제 제도로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제조업이라든지, 내수 시장 같은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올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기업가의 뿌리다. 국민의 뿌리가 너무 약하다. 중소기업의 뿌리가 너무 약하다. 그래서 좀 어렵다.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중산층이 든든히 뿌리내려서 이 민족의 중추를 이루도록 기도해야 한다. 대기업 회장이 무속인의 말을 듣고 기업을 위기에 빠뜨렸다가 감옥에 간 사람이 있었다. 경제를 살리라고 대통령의 특사로 사면을 해 줬더니, 나와서는 국민들 앞에 불륜을 고백하면서 전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게 만든 사람도 있다. 그들 속에 있는 악한 뿌리가 바뀌지를 않아서 그런 것이다. 아마 그 사람이, 부인이 남편을 믿게 하려고 오만 소리를 다 했던 모양이다. ‘당신이 믿음을 가지면 이혼을 해 주겠다’ 하는 이야기도 한 것 같고, 가만히 보면 부인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서, 남편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되면 이 사람이 변하지 않을가 하는 마음으로 시도를 많이 한 것 같다. 그런데 지금도 그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지 못한 모양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감옥에 다녀와도 소용이 없고, 성경을 들고 다녀도 소용이 없다. 사람의 뿌리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무엇이 처음에 들어갔느냐 하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다.

경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경제를 잘 모른다. 영적인 뿌리가 잘못

되면,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사회에도 굉장한 위기가 쓰나미처럼 밀려온다는 것이다.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뿌리가 복음이 아니라 열심, 종교로 내려져 있기 때문에 정말 위태위태한 것이다. 전도 열심에 한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좋아요, 우리 교회가 아주 좋아요.’ 그 정도다. 전도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전도가 아니다. 전도는 우리 인생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그 현상을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해 주는 것이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내가 믿어서 내게 성취된 그 사실을 전달해 주는 것이 전도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전도가 아니다. 그런 말은 절에서도 한다. 무속인들도 한다.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진리, 복음을 각인시키지 않고, 그것을 뿌리내리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 입히니까 위기가 오는 것이다. 우리가 얼마 전에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봤지만, 뿌리가 약한 사람은 다 신사참배 문제에서 다 드러났다. 환난 시대를 견뎌내고 승리하려면, 유혹과 시험이 닦쳐올 때 그것을 이기려면, 정말 복음의 뿌리가 분명히 내려져야 한다. 그래야 승리하는 삶,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우리 모든 참사랑 가족들이 이렇게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기를 축원한다.

(2)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자. 첫 번째 이유는, 원수가 계속 다른 것으로 각인시키려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원수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제대로 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이다. 뿌리가 약하면 자라다가 말기 때문에, 양분도 제대로 흡수할 수 없고,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의 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전도의 열매를 주시지 않는다. 더 정확하게는, 진실 수가 없다. 복음 말고 다른 뿌리를 전할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신자를 붙여줄 리가 없지 않다. 그래서 정말 중직자들은 더 마음에 담아야. 우리 교우들의 지도자들은, 정말 복음을 내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복음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가 점검해 보라.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아는 게 아니다. 그가 믿고 안 믿고는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다만 나는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그게 전도다. 세계복음화는 73억 세계 인류가 모두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73억 인류 중에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그때 성령께서는 당신이 정한 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결실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이다. 다른 뿌리를 전할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새신자를 맡기시겠는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무슨 뿌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사람에게 생명과 제자를 붙이시고 영혼을 맡기실 것이며 후대를 붙이실 것이다. 사랑하는 참사랑 가족 여러분, 우리가 2016년에 정말 전도와 선교, 후대를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참 복음으로 정말 뿌리내리는 축복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바란다. 우리 참사랑교회는 다른 것은 몰라도, 확실한 복음을 가진 교회다.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교회다. 그런 가정,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란다. 이번에 다른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에게 설명을 했다. 우리가 20년 전도운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우들이 1당 100은 못 해도 일당십 정도는 할 수 있다. 기본이 안 좋으신가? 일당백 소리를 꼭 들으시고 싶으신 분에게는 해 드리겠다. (웃음) 여러분, 복음이, 언약이, 오직 그리스도가 내 속에 각인된 것이 뿌리가 싹 내려지면, 열매는 저절로 오게 되어 있다.

2. 뿌리를 내릴 방법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음의 귀한 뿌리를 내릴 것이냐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2016년에 우리가 함께 응답받아야 할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1) 오늘 신약 본문을 보면, 에베소서 3:17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마음과 영혼에 먼저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야 한다. 각인의 단계가 첫 번째다. 오직 예수가 각인되어야 한다.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예수부터 생각하면 각인이 좀 된 것이다. 급한 일을 당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생각나면, 마음속에 좀 각인이 된 것이다. 얻어맞고 죽을 때가 다 되어서야 겨우 생각나면 아직 각인이 안 된 것이다. 각인이 되어야 이길 수 있다. 모든 삶의 경우 속에서,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어떤 상황에 처하거나, 그 속에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을 끝냈다는 것이 확인되면, 각인이 된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한다. 그것이 안 되었으면, 여러분은 복음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 내가 과천교회 여름수련회를 인도한 적이 있다. 그런데 아니,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것이다. 원고를 읽을 수도 없게 되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꼭 이야기했다. 며칠 후에 그 교회 교인을 만났다. 얼굴을 모르는 분이 인사를 하시기에 물어봤더니 과천교회 권사라고 했다. “목사님, 제가 이번 수련회에서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디.” 메시지를 테이프로 녹음해서 남편 차에서 계속 틀었는데, 여섯 번을 들었다고 한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그 말씀을 계속 듣더니 변하더라고요.” 반복해서 듣는 가운데, 못 들었던 것이 들려지게 된다. 포럼을 그래서 하는 것이다. 약대방의 포럼 속에서 내가 못 들은 것을 각인시킬 수 있다. 여러분, 소들이 여물을 먹고 나면 뭘 하는가? 되새김질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새김질되고 뿌리가 내려져야 한다. 오직 복음이 각인된 사람이 뿌리가 깊이 내려지게 되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데, 먼저 마음과 영혼에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야 한다. 씨앗이 잘못 되면 싹도 못 난다. 자랄 수도 없고 열매는 절대 맺을 수 없다. 씨앗이 중요하다. 그리스도는 씨앗이다. 생명이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해야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경우에도 이것을 먼저 생각하라.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생각하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모든 문제는 끝이다.’ 이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날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 각인을 계속 하면 뿌리가 썩 내려진다. 나도 모르게, 경제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치에 있어서, 산업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각인되면서 뿌리가 내려지는 것이다. ‘아,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각인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뿌리가 내려진다. 그래서 새해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반복하고, 복음만을 강조해서 각인하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 그러면 뿌리가 내려진다.

(2) 두 번째 중요한 단계가 있다.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서 세상의 유혹과 환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복음이 지식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지식과 함께 감정과 의지, 실행에 옮길 만큼 의지에 녹아져서 누러져야 한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에, 24시 계속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그리스도께 나를 맡겨야 한다.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성령중만이다. 이렇게 되면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에베소서 3:17 후반절에 뭐라고 하는가? “사라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 큰 건물도 지을 것 아닌가?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왕이시며,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며, 해매고 있던 나를 하나님 만나도록 내 안에 오셔서 참 길을 안내하신 선지자 되심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한 번만 실수하면 ‘아이고, 나는 틀렸어.’ 그러면 벌써 이게 흔들린 것이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철면피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베드로는 철면피고 가룟 유다는 양심적인 사람이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주의 종이 되고 주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래서 목을 매달았다. 그러니 지옥에 가 버린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서도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수제자가 된 것이다. 인간은 어쩔 수 없다. 노 아무게 써는 하나님의 딸인 것 같다. 자기는 가정을 깨뜨리지 않겠다고 한다. 그래도 가정을 지키겠다고 한다. 그 딸이 장교인데, 심한 혼란을 받고 외국까지 갔다 왔다고 한다. 우리가 봤지 않나. 잘 키웠는데 생각이 든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뿌리를 제대로 내려야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이 내 마음에 진하게 감동적으로 남아 있어야, 다가와야 가능하다. 성찬식 때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눈물로 감동하면서 받아먹고 마셔야 한다. 성찬식을 1년에 두 번만 하는 것은 그래서 잘못이다. 칼벵의 가르침이 아니다. 아주 지나친 개혁을 주장했던 츠빙글리의 주장이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성찬식을 하게 되지만, 거기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감동함으로써, 거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사실이 후대의 마음에 환희로 다가와야 한다. 내 마음에 넘치고 후대에게까지 전달되어야 한다. 우리의 생명이 그래서 영원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다. 그분이 머지않아 다시 오신다. 이게 안 되면, 상처의 뿌리, 쓴 뿌리가 감정을 지배해 버리니까, 금방 시험과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고 좌초하게 된다. 어릴 때는 각인된 줄 알았는데 조금 나이가 들면 사춘기라 하면서 다 빠져나가 버린다. 대학생 되면 벌써 빠져나가 버린다. 결혼만 해도 빠져나가 버린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깊이 우리 속에 뿌리내려야 한다는 말이다. 그 은혜가 깊게, 넓게, 높게, 길게 후대에게 체험되는 그런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자는 것이다. 끝없이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믿으시는 것처럼 나도 너를 믿는다. 격려해 주어야 한다. 고아들이 불쌍한 것은 이런 격려와 인정을 한 번도 못 받고, 늘 의심과 증오, 저주와 욕설만 듣고 자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절망하는 것이다.

(3) 세 번째는, 이 응답을 받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다,

① 말씀운동을 계속 피는 것이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성경을 좀 읽자. 성경공부도 해야 하지만, 성경 자체를 읽는 것이 중요하다. 라이브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지도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훈련시켜라.

② 기도운동을 하자. 정말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한다.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구역들이, 모이면 계속 기도하고, 기도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깊이 기도하고, 때로는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밤을 새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했다. “나는 모든 응답을 작정했지만, 그래도 너희가 그렇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③ 뿐만 아니라 전도운동도 계속해야 한다.

이것을 그냥 하지 말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이것을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이 마음에 담으시기 바란다. 모든 중직자와 램네티가 말씀운동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것이 새해의 가장 큰 목표다. 기도운동으로 연결되고, 전도운동의 맛을 보게 되어야 한다. 영적 문제를 말로만 들은 사람은 잘 모른다. 그러나 무당집에 가서 이것을 직접 본 사람은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한다. 이게 확 내려져 버린다. ‘아, 맞구나.’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뿌리가 더 깊이 자꾸 내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현장을 가 보라는 것이다. 혼자 가면 안 된다. 전도하는 사람과 같이 가 보라. 한 번 가서 모르겠다면 또 가 봐야 한다. 연습이라는 것이 그렇다. 훈련이라는 것이 그렇다. 몇 번 하면 보이게 된다. 나중에는 못 하다가 하게 된다. 그때의 기쁨은 형언할 수 없다. 체험한 사람은 안 한다. 말씀, 기도, 전도가 시스템으로 누러진다. 에베소서 3:19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이때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나게 된다.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이것을 일심 전심 지속적으로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일심은 오직이다. 전심은 올-인 하라는 말이다. 지속은 끝까지 하라는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일심, 하나님의 나라로 전심 해야 한다. 여러번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행복 그 자체가 된다. 이것을 지속하려면 성령충만해야 한다. 이렇게 누리고 있으면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 에베소서 3:16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 질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 우리 후대가 걸 사람도 강해져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속 사람이다. 영적 상태가 강건해지도록, 일심 전심 지속의 모델로서 끝까지 응답받는 우리 모든 참사랑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한다.

결론을 말씀드리겠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뿌리내리도록 하게 하기 위한 실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 실천을 간단히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다.

(1) 첫째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면 된다. 중직자부터 램네티까지, 가장 쉽고 당연한 것을 하면 된다. 예배 성공하면 된다. ‘내가 예배는 안 빠지겠다. 예배 와서는 제일 앞 자리에 앉겠다.’ 원로 목사님 한 분이 1부예배에 꼭 오시는데, 이분이 자리가 많더라도 앉을 때는 꼭 긴 의자의 가운데에 앉는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쉽게 그 자리에 앉을 것 아닌가. 우리 교우들이 예배시간에는 앞자리부터 채워야 한다. 늦게 오는 사람들이 그래야 쉽게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다. 우리 스크린을 그래서 바꾸었으면 한다. 시선이 양쪽으로 분산되지 않도록, 가운데 하나만 선명한 것으로 바꾸어서 예배가 회복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도해 보라. 정말 당연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 하면 된다. 교회와 전체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광고 나오는 대로 기도하면 되지 않는다. 그러니 잘 들었다가 기도하면 된다. 당연한 것에 참여하면 된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기분이 좋은 것이, 이번엔 총회헌금을 했지 않나? 우리 제적인원으로 세례 받은 사람이 432명인데, 377만 50원이 나왔다. 50원은 누가 이자로 냈는지 모르겠다. (웃음) 한 사람이 만 원 내야 하는 헌금인데,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많이 내셨던 모양이다. 1년에 한 번 있는 세례교인의 의무가 그것이다. 당연한 것을 하면 된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면 점점 힘이 생기면서 뿌리가 내려진다. 내가 할 것을 했기 때문에, 아이가 숙제를 다 해 놓고 나면 엄마 앞에서 당당해지지 않나?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것을 하고 나면, 믿음의 부요함이 생긴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다. 실천하고 순종해 볼 때 확신이 자꾸 붙는다.

(2) 두 번째로는, 필요한 것을 하면 된다. 당연한 것을 하다 보면 필요한 것이 보인다. 나는 꼭 필요한 것이 보인다. 여러분, 스크린을 볼 때마다 생각이 안 드는가? 다른 교회에서는 스크린이 얼마나 밝은데 우리는 침침해서 보았다 안 보았다 한다. 금년에 아무도 안 하면 내가 할 것이다. 교사가 필요하다 하면 내가 일어나는 것이다. 찬양대가 모자라다 하면 내가 일어서는 것이다. 주일학교에서 교사 40명을 찾았다고 한다. “목사님, 제가 잘 못 하지만 가르쳐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필요에 응답하면 된다. 아이들에게도, 요구하는 것을 주지 말고 필요한 것을 줄 줄 아는 엄마가 진짜 엄마다. 떠났다고 다 주면 나쁜 엄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일부러 쓴 것을 아이에게 먹인다고 한다. 필요를 따라 응답해야지, 요구를 따라가면 안 된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복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가정과 사회에 필요한 것,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누가 나를 필요로 하는가. 그런 생각만 가지면 할 일이 얼마든지 있다. 예를 들어 하나만 이야기해 보자. 밥퍼 운동을 하는 목사가 있지 않나? 이 사람이 청량리를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쓰레기를 줍고 있더라는 것이다. 물어보니까 밥퍼 3일 동안 못 먹었다고 한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당장 가게에 가서 라면을 대접했다. 그때부터 지나가다가, 만 원이 생기면 그 만 원이치를 가지고 청량리역 사람들을 먹인 것이다. 이 소문이 자꾸 났다.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굶어가는 것을 보니까 먹었는데, 다른 돈 있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돈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 돈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200억 원을 들여서 병원까지 지었다. 이 운동이 외국까지 퍼졌다고 한다. 홀어서 나누어주면, 그것이 가장 좋은 투자다. 필요한 것,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보면서 하게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필요한 데 응답하라. 그러면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3) 세 번째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것까지 하게 된다.

당연, 필연, 절대. 당연한 것이 24시의 열쇠라면, 필요한 것은 25시다. 필요한 것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그런 재미를 맛보면 하게 된다. 절대적인 것을 하게 된다.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된다. 당연, 필연, 절대의 축복을 누리다가, 복음에 깊이 뿌리내리려는 큰 응답이, 우리 참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축원한다. 우리 모두가 복음 각인과 복음 뿌리 속에서 행복한 한 해를 살자. 태영이로부터 관심을 가져라. 뭘 하는지 가 보고 참여해 주고 지원해 주고 기도해 줘라. 유치부 어린이부 중고등부 다 마찬가지다. 각인시켜서 깊이 뿌리내리는, 축복된 한 해를 살면서, 행복의 열매를 맺히게 되기를 축원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은 복음을, 언약을 각인시키기 위하여 총력을 경주했습니다. 부족함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각인시키는 행복을 누렸습니다. 금년에 우리는 각인시킨 것에도 뿌리를 깊이 내려서, 열매를 맺는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50년이 될 때에는 헌당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며,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감당하고도 남는 힘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거룩한 항진(航進)을 하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5.12.31. 원단기교회 1강 메시지

하나님의 목표

창세기 3:15

류광수 목사님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가, 물으면 대답하기가 어렵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을까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기가 힘들다. 오늘 이후로는 힘들지 않아야 한다. 그 답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을 하든 항상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훌륭한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되게 경제력이 크게 있는 사람이 복음을 깨달으면 영향이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성경과 교회를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었다. 바울같이 많이 배

운 사람이 복음을 완전히 깨달으니까 세계가 뒤집어졌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큰 역할을 한 경우도 있었다. 그 기준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많은 것을 보게 된다.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도 알게 된다. 이럴 때 우리가 급하게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된다. 자,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준비하셨다. 그런데,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드로 장로가 모세를 도운 것이다. 알고 도왔는지 모르고 도왔는지는 알 수 없다. 그것은 나중에 천국 가서 이드로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 것이다. 좌우지간 분명한 것이 있다. 기생 라합이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이, 정탐꾼 두 명을 숨겨 주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가나안 땅에는 많은 사람이 이미 도망하고 간담이 녹았다고 정보를 줬다. 그 라합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무엇인가? 큰일을 한 것인가? 아니다. 정탐꾼 숨겨주고 밥 한 그릇을 줬는데,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지 않은가. 롯이라는 이방 여인이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들어왔지 않은가? 같이 올 때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다. 나는 절대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했다. 정이 많이 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 너무 어머니가 좋은 분이려면, 버릴 수 없다 해서 따라왔을 수도 있다. 그런데 롯에게서 다윗이 나오고, 육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목표'이다. 이것을 나는 이렇게 표현했다. '절대목표'다.

알든 모르든 이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의 목표 속에 있거나 실천하면, 능력있는 사람이 못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나?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안 하고 여기에서는 목표라고 했다. 계획은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고, 목표는 하나님이 이루어나가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어나가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내 것이 되어 내 속에 있다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표적 인물이 마르틴 루터다. 못 이긴 것이다. 아직도 구교에서는 어찌서 루터를 못 이겼는지 분석을 못 하고 있다. 그렇게 훌륭한 로마 군대가 왜 기독교에게 졌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 무슨 말인지 빨리 알아들어야 한다. 여러분이 이 속에 있다면, 여러분의 사업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것을 듣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옛날에 누가 나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내 밑에 있는 사람인데, 장문의 편지를 나에게 썼다.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이 잘못된 것, 비서가 잘못된 것, 김용기가 이상한 것. (웃음) 그래서, 나는 그게 문제가 아니다. '아하,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구나.' 없어져가는 복음운동을 회복시킬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는데,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든 교역자가 깨달아야 하고, 모든 교역자, 간사까지도 깨달아야 한다. 모든 장로, 모든 목사가 깨달아야 한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비서들은 다 안다. 망해도 완전히 망했다. 물론 기준이 애매할 수 있다. 완전히 거지가 되었는데, 거지가 되었다고 망한 것은 아니지만, 말을 알아들어야 한다. 이미 하나님의 목표는 처음부터 시작된 것이다. 창3:15,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단지 발꿈치 물릴 정도는 될 것이다. 절대로 사단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못 꺾는다. 왜 졌었다고 하지 머리를 상했다고 하는가? 권세를 꺾었다는 것이다. 이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목표다. 알아듣겠는가. 그렇다면, 여러분과 지금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빨리 해결해야 되기 때문이다.

사론 : 기본

엄청난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기본이 틀리면 다 놓치지 않는가.

(1) 사람들 가운데 거의, 틀렸다고보다는, 응답받을 수 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질문이지만 틀린 질문이다. "목사님, 기도제목을 어떻게 정할까요?" 대부분 그렇게 묻더라. 너무 아름다운 질문이지만 틀린 질문이다. 기도제목을 가질 필요가 없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기도제목은 만들어진다. 아니, 에스더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밥을 사줘야 할까 하겠는가. 만날 일이 있어야, '밥 사줘야 하는데, 차비가 필요할 텐데' 하지. 많은 사람들이 질문한다. 교회에 갈증이 없다고, 갈증이 없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갈증이 있을 수 있다. 문제는 그게 아니다. 미래가 불안하다고 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야 대책을 세우니까. 그런데 그 말이 아니다. 실제 이 사람이 이게 안 되고 있는 것이다. 'with'다. 심각한 결론이 나온다. 아니, 그 정도도 아니다. 불신자와 똑같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면 많은 은혜를 들림 없이 받게 될 것인데 말이다.

(2) 틀린 질문을 했으니 틀린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3오늘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지 않나. 하나님이 절대로 목표로 하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3오늘도 의미가 없다. 교회 오면 갈등만 생긴다. 그게 무슨 신앙생활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를 본 사람이라면 절대 갈등이 안 생길 것이다. 요셉은 두 가지를 보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절대적인 목표를 둔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잠시 노력도 가는 것은 상관없다. 영원히 가도 상관없지만, 잠시 가는 것은 완전히 상관없다. 여러분, 기본을 놓치면 모든 부분에 갈등이 생기고 일이 안 된다. 계속 손해를 보게 된다. 진짜로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예수님은 기도제목을 가르치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님은 기도제목 없애는 것을 가르치셨다. "이런 저런 것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이 모르시겠느냐. 다른 것을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셨는가? 기도제목을 주시지 않았다. "오직 성령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는 너무 틀린 것을 각인시켜 놓았다. 이것을 빨리 바꿀 시간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축복을 실제로 못 누리니까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 이러다 보니까 갈급한

병이 생긴다. 갈급병이 반복되면 우울증이 된다. 이게 반복되면 정신병이 된다. 이런 사람이 꼭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면, 일 같은 것도 자기 성질대로 안 되면 참지를 못 한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두고 한 번도 질문하지 않은 사람이다. 문제 왔을 때는 가장 먼저 물어야 한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백 번, 천 번 내게 말씀하신다. "기다려라. 더 좋은 계획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기다려라." "그러면 이 나라가 회복됩니까?"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우리는 기본부터 갖추어놓으면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3)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질문을 해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답이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이 올바른 질문을 하고 올바른 답을 알게 되면,

- 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다.
- ② 그렇지 않으면 설교가 율법으로 들린다.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율법이 아니라 생명으로 다가온다.
- ③ 그리고 기준이 바뀐다. 늘 세상 기준, 사람 기준, 율법 기준을 하다가, 하나님 기준이 된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다. 오늘 여러분들은 꿈이 작은 것부터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것은 고민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은혜가 된다. 심지어 우리를 너무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지 않나? 그것도 기도하고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낼 기회다.

본론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다. 도대체 하나님의 목표가 여러 상황 따라 다르겠지만, 절대 목표가 무엇인가? 성경은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불신자가 읽어도 그렇다 하는 내용이 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불신자도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신자만 읽을 수 있는 글이 있다. 그렇지 않다. 피 언약. 불신자는 모른다. '피가 뭐야. 백정이야.' 그럴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신자도 이해 못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해석이 빨리 안 되던 억지로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자, 지금, 승리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절대 목표다. 특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램넛트 일곱 명이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 빨리 캐치해 보라. 램넛트 일곱 명 이 그랬다. 여러분이 보면 잘 알지 않나. 물론 일곱 명은 내가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램넛트는 왜 여자는 선정을 안 했냐 해서, 에스더 이야기도 해 주고 그랬다. 선정을 한 것은 시대별로 설명하기 좋도록,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일부러 여자를 뺀 게 아니고, 그 시대의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사람을 뽑은 것이다. 애굽, 블레셋, 아람, 바벨론, 그런 포인트다. 그래서 그들은 응답을 받다가 아니고,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여러분, 진짜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간다면, 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물질을 따라가지 않는다. 도망가야 한다. 얼마든지 오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공 따라가는 게 아니다. 성공이 따라오는 것이다. 완전히 불신자 식으로 램넛트에게 가르치면 안 된다.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은 따라온다. 그것을 놓고 노력 정도가 아니라, 생을 걸 수 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목표니까. 어찌서 바벨론에서 죽는 줄 알면서도 그럴 수 있었는가. 잠시 위기도 있다. 그것이 특징이다. 하나님의 목표를 붙잡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당시에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를 알고 본 사람은 그것이 죽음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래서 두고두고 응답이 온 것이다. 그런 사람들의 죽음은 두고두고 응답이 온다. 성경에 여러 번 나오지 않는가? 스테반의 이야기가.

1. 하나님의 숨은 목표

자, 그러면, 첫 번째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과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는, 구원받은 자만 아는 하나님의 숨은 목표가 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만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1) 그래서 이 사람에게에는 어떤 응답이 오는가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 되는가 하나, 이 책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생명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어디에서 보니까 한국에 무슨 레마선교회라는 게 있는데, 그것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웃음)

(2) 자, 이 사람들에게 어떤 숨은 목표,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잘 알고 있는 네 가지다.

- ① 영세 전의 문제다.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하시려고 한 것이다. 간단한 이야기 아닌가?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 이것을 움직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고, 현장에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다. 롬16:25에,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났신 복음이라고 했다. 불신자는 이것을 알 수 없었다. 사실인데,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죽는데.
 - ② 또 어떤 문제인가? 오래 된 문제다. 이것이 바로 창3장, 6장, 11장이다.
 - ③ 그 정도가 아니다. 이것이 전부 국가, 가문의 문제로 왔다. 이것이 행13장, 16장, 19장이다.
 - ④ 이렇게 해서 개인 문제로 온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셨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그 목표를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에게에는 말씀이 역사할 뿐 아니라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 (3) 이 숨은 목표를 가진 사람의 모델을 한 번 보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바울이다.
- ① 빌1:6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루어 나가신다."
 - ② 그 정도가 아니다. 빌1:9-10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이 말은 꼭 알아

들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응답받는 방법이다. 어떻게 바울이 응답받았는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을 본 것이다. 그리고 사람을 볼 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 것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말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오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가.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이다. 똑같은 말인데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러지 않는가? 오해 많이 하는 사람은 노상 오해만 한다. 똑같은 말을 해도 오해되는 쪽으로 해석한다. 할 말이 많이 있다. 이것은 설교로 할 수 없고, 여러분과 다니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실제로 응답 받는 길이 된다. 이것은 사실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그러나 응답을 받는 굉장한 길이 된다. 바울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③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다. 바울이 한 고백 중에 중요한 것이 나오지 않는가? 빌3:1-20에 나온다. 참 대단한 인물이다.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어마어마한 성공을 한 인물이, 그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대단하지 않다. 진짜 더 큰 축복을 본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더 중요한 말이 있다.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발견됐는데 뭘 또 발견되는가?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 우리의 현상이 그리스도께 발견된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그때 빌3:21,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의 비밀을 알게 된다.

④ 빌4:4-8에 뭐라고 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이르라.” 그러면서 13절에 중요한 말을 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큰 야망의 말이 아니다. 감옥 안에서 한 말이다. “내가 감옥 안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9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리라.” 구원받은 자만 아는 목표인데, 이것을 놓쳐 버렸으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찾아 누리시는 사람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 오늘부터 중직자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한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는지 확인만 되어지면 승리할 수밖에 없다. “아니, 잘 살고 있는게요?” 지나고 나면 아니다. 유대인들을 보라. 말씀대로 잘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서 빔나갔다. 그 이후에 굉장한 재앙이 왔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그렇지 않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를 보고 유대인 이야기를 조심해서 하라고 한다. 그게 아니라, 나는 알려주는 것이다.

2. 하나님의 드러난 목표

두 번째다. 하나님의 드러난 목표다. 여기에 답을 주는 것이다. 이것은 불신자가 아니다.

(1) 이스라엘이 일곱 번 재앙을 입었다.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알고 전해야 한다.

(2) 그래서 많은 일을 가운데, 앞으로 말세 때 또 재앙이 임한다. 예수님이 그랬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 이것을 전하는 대열에 섰다면, 부끄러워 할 것도 없다. 이것 때문에 공부한다면, 당당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사업을 한다면, 당당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자꾸 틀린 데 잡혀 있지 않은가. 엄청난 축복받은 사람들인데 자꾸 틀린 데 잡혀있다(서론). 그렇지 않다. 나는 지금도 어떤 때의 기억이 있는데, 내가 중학생 때였다. 옆집에 고등학생 누나가 있었다. 이 누나가 시간이 나면 맛있는 것도 주고 하면서 나에게 참 잘 대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늘 고맙게 생각했다. 그때는 누나가 어른같이 보였다. 그 누나를 잊을 수 없는데, 이 누나가, 내게는 난생 처음으로, 나를 일류 영화관에 데리고 간 것이다. 나는 그 전에는 늘 이원동시상영 작품을 보고 그랬다. (웃음) 램네티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것이다. 영화를 보고 나서는, 이 누나가 내게는 난생 처음으로, 나를 양과 접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다. “이게 양과접이구나.”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무슨 영화를 봤나?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를 봤다. 그 영화를 보니까, 왕궁의 공주가 집을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고생하는 내용이다. 그만하기를 다행이지, 더 돌아다녔으면 큰 사고가 났을 것이다. 공주라는 어마어마한 신분을 놓고 돌아다니다가 일어난 일들이다. 어떻게 보면 낭만으로도 볼 수 있는데, 나는 느끼는 것이, ‘아, 우리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도 모르고 돌아다니는구나.’ 마치 집 나온 왕자가 거지처럼 되듯이,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도 틀린 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여러분, 앞으로 마지막 때 일어날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하셨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할 것이다.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 염소가 일어나서 혼란을 주게 될 것이다. 기름이 없는 등불을 가진 열 처녀는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예언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어렵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열에 섰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안 받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축복의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

3.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목표

세 번째다.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1) 개인의 종말이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 속에 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의 목표 속에 있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 개인의 종말이 분명히 일어난다. 나는 아주 학생 때 안타까운 일을 본 적이 있다. 성탄 축하를 하기 위해서 연합성가대가 저 회관에 모였다. 그런데 지휘자가 안 오는 것이다. 지금 이라면 휴대폰으로 전화라도 할 텐데 그때는 그것이 없으니까. 대원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올까 하면서 시계를 보면서 기다리지 않는다. 그런데 충격을 받아 버렸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다. 그러니까 대원들이 앉아 있다가 어떻게 되었겠는가. 완전히 죽음의 분위기가 되어 버렸다. ‘아, 사람은 자기 일을 모르는구나.’ 알 수 없다.

(2) 시대 시대마다 종말이 있다. 언제인지 아는가? 하나님이 중요한 영적 문제와 재앙을 바꿀 때마다, 시대마다 종말이 있었다.

(3) 지구 종말이 있다. 이것도 언제인지 모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마 24:14,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 그렇다면 내가 어느 대열에 서야 하는지는 답이 나오는 것이다. 행1:8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제1:3에,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다.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또 여러분처럼, 아니다. 나처럼, (웃음) 안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을 누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목표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세 가지 절대 목표 속에 있는 자는 그럴 수밖에 없다. 1년 동안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란다.

결론

자, 결론을 맺겠다.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고 역사를 보라. 하나님이 시대 시대마다 특별하게 쓴 사람이 있는데, 그 시대가 언제인가? 자, 성경을 쳐다보고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시대 시대마다 특별하게 쓰신 분이 있는데, 그 시대가 언제냐 하는 것이다. 내 설교는 지금 다른 교단에서 다 듣고 있다. 또 많은 학자들도 듣고 있다. 특히 나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은 자세히 듣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다. 이것은 다른 교단은 잘못되고 우리만 맞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시대 시대마다 복음 일어났을 때가 있었다. 시대 시대마다, 이것은 우리는 맞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법적으로도,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말하면 발음을 내기로 통과된 상황이다. 한국교회의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실제로 영적 문제로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많은 종교인들이 다 죽어가는데도 이것을 모르니까 지금, 그런 시대가 왔다.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복음 회복시키는 일을 한 것이다. 그 속에 들어있는 자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붙잡는 자가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 램네티들은 당당하게 공부해야 한다. 2강 때 램네티에게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여러분이 당당하게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해야 한다.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해야지, 어려워서 못 하지 않는가. 오랫동안, 수십 년 들은 거짓말이 각인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사업이 달라진다. 이런 때가 성경과 회교사에 몇 번 있었다. 자, 중세시대에 성주 한 명이, 마르틴 루터가 말하는 그 복음을 회복해야 한다고 깨달은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루터를 돕는 것이다.’ 그 바람에 세계가 변화된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성에 우리가 갔다왔지 않다. 저 유럽에서,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된다고 했다. 그게 복음이 없어진 것이다.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된다고 하니까.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역사를 유럽 교회가 다 쓰고 있었다. 그때 복음을 회복하도록 돕고 일어난 나라가 미국이었다. 그때 많은 교회를 세우려고 마음을 먹은 것이 록펠러 1세였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지 않다. 지금 미국도 복음이 없어지고 있다. 크리스마스도 그리스도 상징하는 것이니까 쓰지 말라고 한다.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게 과연 어떤가. 전 세계에 복음이 없어져 가는데 우리만이라도 복음을 전하자는 것이, 남을 무시하고 우리가 교만해 하는 것인가. 성경을 보고 회교사를 보라. 그것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이 중요한 절대 목표를 붙잡고 새롭게 시작한다.” 지금 응답 없이도 괜찮다.

(1)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한다. 올바른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게 올바른 믿음이다. 왜냐, ‘나’라고 하는 존재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없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 그리스도가 나의 사업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늦어도 괜찮다. 올바른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올바른 희망이 무엇인가? 이것이 미래 살리는 힘이다.

(3) 영원히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다는 치더라도,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왜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영원한 응답으로 왔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서 빔나간 것은 영원한 실패를 가지고 왔다. 여러분의 믿음과 기준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영원이라는 것이다. 이 축복을 누리셔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 나는 지금 기도가 그렇다. 나에게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 곳곳에 RUTC운동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란다. “나는 이 복음을 막는 시대에, 복음으로 사람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중직자가 되게 하옵소서.” 2016년은 특별한 해다. 여러 가지 응답이 올 것이다. 더군다나 여러분이, 기도 안 하셔도 되지만, 알고는 계시어야 한다. 한국의 신학자 40명이 모여서, 작년 재작년에 나에게 대해서 검토를 했다.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 이번에 새로 한국 기독교총회 대표회장이 왔는데, 그분이 재검을 하자고 했다. 재검을 해서 문제가 없다고 되어졌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가장 큰 교단인 합동 측에서 나를 건드렸다. 합동 측에서 재검하자고 나온 것이다. 한기총이 그렇게 하나까. 그 판결이 2016년에 나온다. 둘 중 하나일 것이다. 나는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본격적으로 한국교회 전도운동을 나는 시작하겠다. 왜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여러분들이 서는 것이다. 우리 램넛트는 그 속에 서서 공부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새로 시작하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시는 것을 하게 해 주옵소서. 언약하지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하옵나이디. 아멘”

“하나님, 우리의 예를을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산업을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꼭 필요하신 곳에 사용하시는 귀중한 사업이 되게 해 주옵소서. 1년 동안에 큰 응답을 누리신 영안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목표를 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절대 목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곳에 우리의 물질과 드림이 쓰임 받게 하옵소서. 1천만 배의 복이 임하여 1천만 제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중요한 절대 목표를 깨닫은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지이다. 아멘”

2015.12.31. 원타기도회 2강 메시지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표

사도행전 1:3

류광수 목사님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응답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본 것이다. 여러분들은 그 속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나는 느낀다. 그렇다면 이 응답을 어떻게 누리겠느냐는 것이다. 이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본 사람들이 응답받은 것은 확실한데, 어떻게 그것을 누릴 것인가. 그것이 바로 '나에게 대한 목표'가 있다. 그것을 보아야 한다. 제목은 '나의 인생 목표'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표'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겠지만, 나에게 대한 목표가 있다. 이것을 찾아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이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질 것이다. 또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힘이 들고 지쳐 있는 상태일 수 있다. 여러분이 약간, 시작에 대해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서론 : 시작 (절대 사명)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신 몇 가지의 절대 사명이 있다. 절대 목표만 있는 게 아니고 절대 사명이 있다.

(1)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 기본적인 달란트 말고도, 시간이 갈수록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만, 어디든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해둔 달란트가 있는데, 이것을 왜 발견을 못 하고 있는가? 실제로 이 40일이라는 의미를 놓치기 때문이다. 40일은 날짜를 채우라는 말도 되지만, 그 말이 아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아야 하는데, 그 시간표가 없는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무슨 걱정을 하나냐 하면, 아이들이 복음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을 많이 보면 생각이 어디로 가게 되겠는가. 책을 많이 봐야 하겠지만,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우리가 사실은 한 시간 동안 영화만 봐도 생각이 많이 바뀐다. 그런데 생전에 하나님의 계획, 성령의 역사, 말씀, 이런 것은 안 보면서 책만 계속 보면 그 사람은 생각이 틀림없이 다른 데로 가게 되어 있다. 책을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이 답을 얻은 적이 없는 것이다(서론-(1)).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축복을 보면서 봐야 하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놓치는 것이다. 목사님들도 보면 표가 난다. 어느 날 보면 뿔 막 주장한다. 속으로 내가, '책 한 권 읽었구나.' 틀린 것을 주장하는데, 며칠 안 간다. (웃음)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며칠 안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에 못 들어가는 것이다(나라). 어디를 가든지 생각해야 하고, 어떤 면에서 생에 한 번은 이 축복을 누리야 한다. 분명히 이 축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2)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예비되어 있다. 이것은 경계를 포함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로 한 인도를 안 받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놓친다.

(3)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현상이 있다.

(4)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사명이 있다.

(5)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새신자를 포함한,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날 제자가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사실은 매일 생각해 보는 것이 3오늘이다.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40일, 행1:3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런 부분들을 자꾸 놓치기 때문에, 우리는 쓸데없이 염려도 많이 해야 하고 힘이 빠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라고 한다(서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이 축복을 받아 깨달아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

본론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목표를 나에게 가지고 계시는가? 분명히 있다면, 사람마다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부터 찾아 누리야 한다. 그 첫째가 무엇인가?

1. 복음 이해

복음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1) 자, 성경을 한번 잠깐 보자. 출애굽을 해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 40년 동안 광야 길을 가게 했다. 이 40년을 가면서 뭘 했는가 하면, 장례식을 한 것이다. 데리고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한 목에 죽이면 안 된다. (웃음) 소문난다. '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다가 몽땅 다 죽었다더라.' 다 죽이고 가 버리면 빠르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40년이 걸린 것이다. 사실은 다섯 명 때문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드로,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이어서 들어간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을 쓰셔야 한다.

(2) 자, 예수님 당시를 한번 보라. 마16:13-20,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나냐." 이것은 이미 여러분이 아시지 않다. 아무도 대답을 못 하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했다. 그렇게 해 놓고는 변화산에 가서 땅도 마17:1-9, 모세 엘리야 환상을 보더니 충격을 받아서, 여기에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집 세 채 지어서 살자는 것이다. 복음화가 안 되는 것이다. 그레 놓고는 뭐라고 하는가? 마18:1에, "지금 우리가 천국에 가면 누가 제일 대행이 됩니까?" 이것을 물었다. 심지어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부탁하고 그랬지 않다. 핵심 제자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우리 중에 누가 큰 자냐?' 이렇게 나온 것이다. 이 사람들을 가지고는 세계복음화를 할 수 없다. 예수님이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천국에 가면 저 아이가 큰 자다 하시지 않았다. 행11:1-18에, 뭐라고 했는가? "어떻게 고넬료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어째서 이방인의 집에 갔느냐?" 사실은 쓰실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표로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도록 복음으로 각인시켜라. 그러면 여러분이 살게 된다. 뿌리내리게 될 때 열매맺게 된다. 체질화되면 세계를 변화시키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근본적인 목표다. 그 이전에는 쓰임을 못 받았다. 이래 가지고는 쓰실 수가 없다. 행1:6-7, 갈람산에 내려와서도 그랬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 때입니까?" 그것이 목표인 줄 알았다. "그것은 당연히 온 것인데, 그레 문제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3) 잘 기억하셔야 한다.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 날부터 시작되었다. 행 1:14. 여러분은 지금부터 아무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어떤 면에서 죽음이 와도,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복음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사단이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다면, "다른 것 다 해라. 복음만 제대로 이해하지 마라." 그렇지 않다. "모든 것 다 가져라. 복음만 제대로 각인되지 마라." 그레 사단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절대 목표가 있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가?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되면 승리하는 것이다. 이때부터는 행2:1-4,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드디어 최고 응답이 온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성공하고 싶은가? 더 큰 성공이, 행 2:9-11, 열다섯 나라의 문이 열렸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해도 한 나라 이상 못 움직이는데, 열다섯 나라를 움직이는 역사가. 어떤가? 갈2:20이 되어 버렸다.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려 왔다가 못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중심에 있으니까. 사단이 교회로 다 무너뜨리는데, 무너뜨리러 왔다가 못 무너뜨린다. 왜냐, 그리스도가 중심이니까. 재앙이 들어왔다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오래 믿은 장로님들, 알아듣게 되기를 바란다. 지식인에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갔다면, 바울처럼 쓰임 받는다. 문제는, 잘 안 들어간다. 이게 굉장한 문제다. 그것만 안다면,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가? 개인의 목표가?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우리는 어머니마하게 하려고 한다. 물론. 그것은 다음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실패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목표다. 꼭 기억해야 한다. 램넛트들이 특히 앞으로 나가는데, 성경구절 하나도 안 읽고 기도 1분도 안 하고, 밖에 가서는 공부로 계속 돌린다. 정말 살아남아 있는 것이 주의 은혜다. 그레도 복음을 강조하니깐. 너무 강조한다 싶은가?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한다. 교회들이 싸움 붙어서 치고받는 것 못 봤는가? 복음이 약하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후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가. 나를 이는 사람은 안다. 우리 모교회가 치고받고 싸우는 교회다. 그 사람들, 그 주역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동네 사람은 다 안다. 하나님의 목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절대로 이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것을 각인시키는 것이다. (1). 그래서 빌3:1-21의 말을 봐 버리면 말도 달라져 버린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다. 자, 이게 첫 번째 목표다.

2. 영적 DNA

두 번째 목표다. 하나님이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두 번째 목표가 있다. 영적 DNA를 갖추게 하는 것이다. 육신 DNA는 안 바뀔지 몰라도, 영적 DNA는 바뀐다. 왜냐, 여러분의 능력을 하나님은 바꾸시기를 원한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병든 몸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시기를 원한다. 이것을 알고 누리면 계속 누리지게 된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아예 세상적이면 잘 안 되는 것이다. 시작부터 하나님의 나를 누리려 하는데, 시작부터 세상적인 것, 불신앙을 계속 누리 버리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게 체질화 되어 버려서 말도 늘 그렇게 해 버린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듣고 있지

않나. 신자들도 듣고 있다. 밖의 불신자들도 듣고 있다. 눈에 안 보이게 전달되는 영적인 힘이 굉장한 것인데 모르고 있다. 2016년에는, 지금까지 받았던 응답이 크지만, 제대로 진짜 응답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라고 하시는가? 재앙이 너희를 가까이하지 못한다고 했다. 사방으로 싸여도 싸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복음부터 이해해 버리면 당장 영적인 일이 벌어진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당장 영적인 일이 벌어진다. 어떤 지옥 배경도, 어떤 재앙도, 어떤 흑암 세력도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영적 무장을 한 뒤에, 영적 DNA를 바꿔라. 여러분들이 이 힘을 갖추는데 참고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

(1) 렘넌트 일곱 명이 이 답을 얻고 나니까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지 않는가? 가치를 모르는 데는 안 되지 않나. 진짜 알고 나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너무 위험하게 공부를 해 왔구나.' 알게 되어 버리는 것이다. 애들이 지금 영적인 힘이 없다. 이 힘이 있으면 나중에 굉장해지는데,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하나까 나중에는 힘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가치를 알면 어떻게 되는가? 아, 이것은 완전한 것이고 충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구나.' 이것을 딱 알게 된다.

(2) 이때부터, 우리는 기도제목보다 더 필요한 것이 기도다. 기도제목이 필요한 게 아니고, 기도가 필요하다. 무슨 기도 말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말이다(행1:1, 3, 8).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충만의 역사. 이것 누리는 것이 다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다. 여러분에게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한 후에,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충만의 역사를 알도록 하시는 것이다. 이런 것 몇 가지가 바뀐다. 이때부터 그냥 달란트가 보이는 게 아니다.

- ① 내 직업에 대한, 일에 대한 천명이 보인다. 그러면 이것은 따라오는 것 아닌가? 소명, 사명.
 - ② 이때부터 뭐가 보이는가? 여러분, 천명이 보이니까, 이제는 일심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면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데 앞으로는 더 큰 일이 일어난다. 오늘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한 영적인 축복의 시간이 된다. 그러니까 침실이라고 하는 행복과 지숙이라는 응답을 계속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게 무엇인가?
 - ③ 그래서 내가 어디에 올-인 할 것인가가 나온다. 24. 이것은 하나도 힘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25. 영원이라는 답이 온다.
 - ④ 드디어 무엇인가? 여러분은 돈 벌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욕심 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오직이라는 응답을 주신다. 세상 사람처럼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유일성의 답을 주신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여러분은 불신자처럼 고생하다가 늘 흑암 속에 있다가 가는 게 아니고, 그들을 살리는 응답 속에 부르셨다. 재창조의 응답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다. 우리에게 대한, 이것을 언약으로 꼭 붙잡으셔야 한다.
- (3) 이때부터 무엇인가? 한 마디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이 땅을 떠나는 날에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이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영적인 굉장한 힘을 가지게 된다.

3. 참 성공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공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참 성공하기를 원하신다. 자, 참 성공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가장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힘을 가져라(3-(1)). 그 속에서 나오는 응답을 누리라(3-(2)). 이것이 꼭 중요하다.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학업에 성공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노력하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도전하라. 그렇게 오는 응답이 진짜 응답이기 때문에, 그것이 참 성공이다. 이 순서가 바뀌어 버렸으니 계속 문제가 오는 것이다. 그냥 하면 안 되고 꼭 들으셔야 한다.

(1) 여기에서 영적인 힘은 무엇인가?

① 렘넌트 일곱 명의 특징이, 평상시, 하나님의 능력을 늘 누리고 있었다. 2016년에 그리 되기를 바란다.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있다. 뭔가 모르게 영적인 힘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니까 설명이 안 되지 않나? 하지만, 진짜로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우리 렘넌트 가운데 나오게 될 것이다. 나는 우리 렘넌트 가운데 참된 정치인도 나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렘넌트 가운데 진짜 세상 살릴 수 있는 노벨상 받는 사람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목표가 아니라 증거로 올 것으로 믿는다. 그렇지 않나. 앞으로 영적인 힘을 얻어서 재창조의 응답이 오면 이렇게 될 것 아닌가. 이 순서를 바꿔 버리면, 불신자는 바꿀 필요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 더 놀라운 사실, 우상숭배한 사람들이 순서를 바꿨다. 진짜 알아들으셔야 한다. 악령충만해서 무당 하지 않는가?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그들을 살리려고 하면, 성령충만해서 해야 한다. 뉴 에이지 운동이 무엇인가? 귀신충만해서 학문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참 성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꼭 기억해야 한다.

② 응답을 평상시에 누리야 하지만, 특히 문에 왔을 때, 이때는 더 큰 기도를 발견해야 한다. 모든 응답을 다 받게 된다.

(2) 그 다음에, 응답 왔을 때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응답 못 받는 사람은 어떤가? 모든 영광은 나에게, 모든 문제는 너에게. (웃음) 그런 사람은 응답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받아도 소용없다. 하나님의 사람 아니다.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반대는 뭔가? 사단의 사람이다. 불신자는 그것을 모른다. 모르니까 당한다. 안타깝다.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어야 한다. 이 순서를 제대로 누리야 한다. 불신자들은 우상숭배해서 거의 악령충만해서 세상을 장악하고, 흔들리고, 망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령충만하여 하나님의 응답으로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무엇인가?

(3) 롬16장 대열에 서라. 이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에 대한 목표다.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축복이기 때문에, 이 축복의 대열에 서라. 서 질 것이다. 길게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은 이미 그 축복 받은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만 해도 온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워낙 안 해서 그렇지, 조금만 하면 역사 일어난다. "아이고, 나는 각인된 게 안 바뀌어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은 잘 안 바뀐다. 그러나 저분들이 바뀌었다 하면 난리 나는 것이다. 오래된 마른 나무, 불 한 번 붙어 버리면 안 그친다. "나이가 많은데 경력도 없고." 그렇지 않다. 나이가 들면 잘 안 들어간다. 그런데 들어간 것은 안 나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언약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려고 하는 목표다. 복음 바로 이해해서 망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나. 그리고 영적 DNA를 갖추어서 이제는 세상 살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살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진짜 성공을 하라는 것이다.

결론

결론을 맺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 (1) 태영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의 젊은 층들이다. 여러분 집을 10년 안에, 기도해서, 미션 홀로 만들어라. 이것을 목표로 두면 된다. 아기 키우는 엄마들, 진짜 힘들다. 지금 우리 딸이 애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해매고 있다. 참도 못 자고 완전히 아이와 같이 해맨다. 그래서 내가, '야, 참 다행이다. 쌍둥이 안 낳아서.' (웃음) 쌍둥이 낳았으면 얼마나 해맸겠나. 진짜로 우리 여자분들이 아이를 몇 낳아서 키우면 사실 정신없다. 그런데 그 아빠들은 어떤가? 사실상 밖에서 제일 어려울 때다. 제일 친대받고 어렵고 힘들 때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태영아 데리고 있는 부모님, 아빠들은, 이것을 목표로 뒤라.
- (2) 자, 그리고, 우리 유아유치다. 이 렘넌트들은 지금 모든 부분에 발판을 깔고 있는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어린아이들, 유치원생들, 유아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불신자 선생에게 맡기지 말라고 부탁하고 싶다. 일반 수준이 낮아도, 여러분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은 교회 안 선교원으로 보내고, 믿는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 그것도 복음 정확 한 사람을 만났다면, 그것은 최고 축복을 받은 것이다. 왜냐, 발판이 되니까. 평생 뿐 아니라 영원히 된다.
- (3) 초등학교생이 있다. 모든 기초를 쌓아가고 있다. 발판에다 기초를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생들에게는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아주 잘 심어주어야 한다. 될 수 있으면, 단 몇 권이라도, 부모님들이 복음적인 관점에서 책을 읽어보는 것도 좋다.
- (4) 중고등학생이다. 중고등학생들은 지금 미래가 결정되는 시기다. 이미 고등학교 때는 좀 늦다고 보아야 하는데, 미래를 보는 시기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한다. 공부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기도 속에서 찾아내어야 한다.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시간은, 나중에 여러분이 나이 들어서 굉장하 오래 가는 응답이기 때문에, 절대 렘넌트들은 속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절대 목표를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목표다.
- (5) 대학생인데다. 앞의 것을 참고하라. 여러분들은 거의 앞의 것을 안 해 왔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깨닫고 복음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도전하는데, 어디로 향하는가? 유일성을 향해서 도전하라. 될 것이다.
- (6) 우리 나이 많은 기성세대들. 여러분들은 거의 많이 살아와서, 안 바뀐다고 봐야 한다. (웃음) 그러면 포기해야 하는가? 방법이 한 가지 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 왔는데도 안 바뀌지만, 쓰임받는다. (웃음) 성령이 역사하시면 급한 성격이 느려지느냐? 안 그렇다. 그런데 급한데 쓰임받는다. 더러운 성격이 바뀌나? 잘 안 바뀐다. 그런데 쓰임받는다. (웃음)
- (7) 특히 우리 교역자들. 완전 복음의 증인 되기를 바란다. 그것만이 여러분이 할 일이다. 완전 복음인데 예수 증인이 아니고 오직 증인이 되어야 한다.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전하는 것이다.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자, 내일 이제 마지막 한 강의를 놓고 있다.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은혜도 크지만, 2016년도 진짜 응답받는 축복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많은 것이 바뀌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뀌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목표 가운데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곳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생과 후대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에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물질이 거기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올해는 많은 은혜 누리시는 증인의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목표를 확신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어라. 아멘"

2016.1.1. 원단기대회 3강 메시지

나의 교회의 목표

사도행전 2:1

류광수 목사님

바리새인들은 힘이 막강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하나의 세력으로 본 것이다. 복음 없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안 하든 똑같다.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쟁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배우기를 그렇게 배우서 그렇다. 어떻게 하면 강자를 이기고

내가 올라설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세상에서는 가르친다. 군주론이 그렇고, 손자방법이 그렇다. 그래서 세상은 전쟁으로 끝이 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고 배워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세력으로 본 것이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다.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가 없다. 초대교회를 사형시키고, 나중에는 따라가서 현장에서 죽이고 그랬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들이는 팀을 구성했다. 그 팀장이 바울이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회개하고 완전히 그리스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다. 너무나 분하게 생각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때부터 초대교회는 물론, 바울을 잡아죽이기 위한 팀을 본격적으로 구성해서 다닌 것이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진 것이다. 더 웃기는 일이 벌어졌다. 이 엄청난 세력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로마가 일어난 것이다. 10명의 황제가 계속해서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로마는 복음 앞에 항복하고 말았다. 왜 그런가? 이유 세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초대교회에서 어쨌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된다.

서론

(1)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목표를 가지고 계신다. 그 속에 있는 자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1강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큰 인물이 못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리학처럼. 이 속에 들어가면 된다. 그렇지 않나. 우리가 무슨 왕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 오바다처럼. 어떻게 해서 오바다가 왕의 신하인데, 왕의 원수인 엘리야를 도왔잖나? 이 절대목표가 들어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신자만 알 수 있는 숨겨진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다. 불신자도 아는, 사람 살려야 하는 목표를 가지고 계신다. 아무도 모르는, 중요한 목표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 그 속에 있는 자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1강이었다. 그 이유를 초대교회는 알고 있었다.

(2) 두 번째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강한 나라들에게 이길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무리 좋아도, 나에게 있는 목표를 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초대교회는 알았던 것이다.

(3) 그리고 세 번째 것이다. 이 절대목표의 축복(서론-1))은, 우리가 발견하기만 해도 굉장한 역사가 일어난다. 어떤 면에서는 이 대열에 서기만 했는데도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이것을 찾아 누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성취되기 시작한다(서론-(2)).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절대 멸망받지 않도록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영적인 힘을 얻어라. 그리고 무엇인가?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다. 초대교회가 세 번째 것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지속하기를 원하신다. 지속하는데, 어디에다가 그것을 맡겼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하나님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지속해야 하는데, 어디에 맡기셨는가? 교회에다 맡기신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목표다. 하나님이 나의 교회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계신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지속하기를 원하신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아는 자여야 한다. 몰랐던 것이다.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지금 유월절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는 것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 중 계획이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다(서론-(1)). 그런데 여기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 이 병을 오늘 고쳐야 한다. “아니, 왜 우리를 광야에 나와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나왔다. “아니,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세운 것이 아니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제빵 먹고 잘 살지 않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 정도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이렇게 나왔다. 한 명도 빠짐없이 장례식을 치르게 하셨다. 애굽을 아는 사람은 두 명 빼고 다 광야에서 죽었다. 그 두 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다. 여러분, 응답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어야 한다. “드디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구나. 우리는 가다가 광야에서 죽어도 괜찮다. 우리 후대는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나와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라합을 쓰실 수밖에 없었다. 비록 기생이지만 쓰실 수밖에 없었다. 많이 배운 분들, 성공한 분들이 복음을 깨달으면 좋은 정도가 아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실 것이다. 그러나 아무 힘이 없는 여러분도 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똑같이 쓰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감사를 누려야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 것이다(서론-(2)). 그렇다면 이 축복을 지속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교회에다 맡긴 것이다(서론-(3)). 여기에서 여러분이 절대현신을 찾게 되는 것이다.

본론

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란다.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아직 교회를 이해를 못 했다. 교회가 무엇인가? 아직 중직자들 가운데 교회와 교회당 구분을 못 하는 경우도 있다. 오니까 복잡하고 기동도 많고 이것은 교회당이다. 교회가 아니다. 그것도 구분 못 하면 안 된다. 어떻게 그래서야 응답을 받겠는가? “아이고, 지하로 오니까 복잡하고” 그것은 교회당이다. 교회는 여러분이다. 교회 이해를 못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오늘 빨리 바꾸셔야 한다. 교회는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카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들이다. 그렇지 않나. 교회는 동아리가 아니다. 교회는 클럽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회는 무슨 동아리 단체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곳이다. 교회는 라이온스 클럽 같은 곳이 아니

다. 로터리 클럽 같은 곳이 아니다. 너무 착각하는 분들이 많다. 그것은 영적으로 굉장한 손해를 보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러모으신 곳이다. 이 엄청난 축복을 지속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아시겠는가. 그러면, 여러분은 초대교회에서 받은 응답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초대교회는 세계복음화를 이룬 것이다. 이 뒤부터 문제가 왔다. 초대교회에 있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한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아셔야 한다. 이런 완전 눈이 달라진다.

1. 결론

자, 초대교회는 무엇을 지속해야 하는가를 알고 있었다. 무엇인가? 초대교회는 교회의 결론을 알고 있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가 없었다. 절대로 사단에게 당하지 않았다. 무엇인가?

(1) 행1:10이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무엇인가? 이것이다. 구약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신약성경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결론, 그리스도.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쉽게 말하면,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으시면 된다. 자, 어떤가? 이 축복이, 큰 인물들이 교회를 차지하기 시작했는데, 잘 될 줄 알았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국교로 선언했다. 그때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했다. 점점 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대열에 선 사람이 루터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지금 한 500년이 지났다. 지금 복음이 없어져간다. 없어졌다. 이런 상황이다. 지금 심지어 갈리오 어느 교수는 이런 말을 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런 것이다. 이러니까, 한국교회가 그때만 해도 들고 일어난 것이다. “교수가 왜 저런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 교수를 자르려고 했더니, 학생들이 데모를 했다. 그 학생들이 뭐라고 했는가? “지금 이 시대에 무슨 그리스도, 구원 이야기를 하느냐! 왜 그 교수님이 잘못되었느냐!” 그렇게 들고 일어났다. 그들이 지금 목사가 되었다. 여러분이 아시지 않나? 한국교회 절반이 WCC운동을 한다. WCC를 아시지 않나? 굿도 하고 다 한다.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다. 많은 민족이 있지만, 많은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국에 복음운동을 크게 일으키셨다. 많은 분들이 한국이 이래서 안 된다고 하는데,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이다. 우리는 신사참배운동 때도 복음을 지켰다. 공산주의 시대 때에도 복음을 지켰다. 그 두 가지에 희생당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이겨냈다. 하나님은 지금 복음 없어져가는 이 때에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는데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간 것이다.

(2) 행1:30이다. 무엇인가? 이미 미래에 대한 것을 다 알고 있었다. 아무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복음 없이 죽어가는 미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오늘 여러분이 이것으로 결론 내시기 바란다. 여기에 많은 다민족이 있다. 오늘 여러분이 결론을 내셔야 한다. 진짜 결론내야 한다. 그러면 응답이 온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나라에 복음 운동을 하시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아프리카에서도, 일본에서도 와 있다. 오늘 여기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 그 결론이 안 나면 항상 흑암 세력은 여러분을 따라다닌다. 흑암 여기에 정지하는 분 계신가? 결론을 내야 한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한국은 절대 망할 수 없다. 한국이 망한다 하는 사람은 정신병자들이다. 절대 망할 수 없다. 왜냐, 복음운동을 해야 한다.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속도를 붙이는 나라가 한국이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에서 강제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어릴 때만 해도 밥을 얻어먹는 사람이 많았다. 지금도 이름이 있다. 부산 국제시장에 가면 광통시장이라는 것이 있다. 그 유래를 지금도 붙여 놓았다. 그게 무엇인가? 옛날 미군에게 얻었던 광통을 놓아두고 팔았던 곳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선교사를 보내고 있다. 나는 호주에서 선교사님들이 새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가 호주에 선교하러 가고 있다.

(3) 오늘 결론을 내셔야 한다. 아시겠는가.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다. 어떻게 말인가? 성령으로 분명히 약속하셨다. 무엇인가? 방법을 알고 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왜 오직 성령인가? 전 세계가 악령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방법까지 알고 있었다. 부모님, 선생님 때문에 고생하는 학생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직 성령 받아서 공부하라. 1등 경제가 아니다. 유일성 찾아내라. 어떻게 하면 이기겠는가 고민하지 말고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라. 성경에 그리 되어 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 한다. 생각을 바르게 해야 응답을 받는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 앉아있는 다민족을 통해서 여러분 나라를 복음화할 것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요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그런데 복음 없어져가는 이때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다.

(4) 행1:14, 무엇인가? 결론난 자들의 만남이다. 꼭 만나도 믿음 없는 것 만나서 속닥거리다가 죽지 않나. 결론 난 자들의 만남이다. 여러분, 진짜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결론 난 자들의 만남.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하는 것이 무엇인가? 결론 난 자들의 만남. 이것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이룬 것이다.

2. 결과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긴다. 결론만 난 게 아니다. 결과도 알고 있다. 여러분, 결과를 알고 있어야 한다.

(1)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복음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2) 이게 성취되었다. 무엇을 말인가? 행2:1-4, 성령의 사명을 통하여,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7천 가지의 약속이 성경

에 성취되었다. 그런데 이 말만 거짓말이겠는가. 예수님이 오실 것, 말기유에 나실 것이 예언되었는데 성취되었다. 놀랍게도 성경에 일점일획 틀림없이, 애굽이 어떻게 될 것이다. 바벨론 어떻게 망할 것이다 예언되었는데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었다. 이것만 거짓말이겠는가? 나는 반대로 생각한다. 이것이 진짜다. 예언에 불과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답을 주셨다.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다.

(3) 자세히 보라. 행2:9-11, 무엇인가? 숨겨둔 자를 통하여. 반드시 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꼭 기억해야 한다.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자 천만 명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 한 명을 못 당한다. 못 당하게 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그런 적이 없다. 그렇지 않다. 수십억의 사람이 루터 한 명을 못 이겼다. 못 이긴다. 거짓말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어떻게 거짓말이 진실을 이기는가. 사랑이 생명을 이긴 적이 없다. 어두움이 빛을 이긴 적이 없다. 그렇지 않은가.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이다. 쓸데없는 염려에 사로잡혀 불신자처럼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은 숨겨둔 자를 통하여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것이다. 교회가 이 일에 절대 헌신해야 한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유지시키겠다는 것이다. 교회를 통해서 지속하시겠다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교회에 어떤 고민이 있는가. 여러분 한 명 만 결론내면 된다. 여러분 한 명 만 결론을 내면, 여러분에게 중요한 결과가 보일 것이다.

(4) 자, 성경을 자세히 보라. 행2:41이다. 하나님, 준비된 갈급한 자를 통하여. 이대로 이루어져 간 것이다. 지금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있고, 찾고 계신다. 오늘부터 아무 쓸데없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불신자 식의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5) 보라. 행2:43-45이다. 정말 헌신한 자를 통하여. 이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했는데, 이게 세계를 정복했다. 믿을 가진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화하신다. 하나님은 기부금을 받지 않는다. 헌금을 받으신다. 우리는 돈을 내는 것이 아니다. 헌금으로 헌신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흑암 경제를 꺾으셨다. 틀림없다. 바른 것을 잡아야. 여러분, 혹시 교회 재정 같은 부분이 걱정이 되실 수 있다. 중직자, 당회원들은 기도를 시작하라. 부산에서는 주일마다 모인다. 당회원 전원이 모인다. 기도하고 메시지를 받는다. 그러니까 그것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 보인다. 장로님들이 살아 움직이니까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이 없다. 전국 세계 교회 모든 중직자들에게 부탁한다. 여러분이 흔들리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간다. 미국에 가 보면, 심심하면 교회를 그만두고 옮기는 거지. 그러는데, 그러지 마라. 그것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가? 후대와 램넌트들에게, 어려움을 빼는 그만두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진짜 교육은 우리의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게 더 큰 교육이다. 많은 자라나는 후대는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배울 것이다. 여러분이 한 명 만 결론이 나도 살아난다. 여러분이 그 결론과 결과를 알고 드리는 예물에는 반드시 로마 정복하는 기적이 일어난다.

3. 과정

세 번째다. 핍박이 일어난다. 과정이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과정.

(1) 한참 핍박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되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행3:1-10, 성전 미문의 앓은뱅이를 일으켜 세워 버렸다. 핍박하는 자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 문앞에서 앓은뱅이를 일으켜 세웠다. 그것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앓은뱅이를 일으켜 세웠다. 그것도 은과 금이 아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 행4:1-12, 그것 때문에 법정에 섰다. 과정이다. 여기에서 놀라운 메시지가 나왔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3) 행8:4-8, 드디어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다. 과정을 알고 있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문제, 많은 핍박은 전부 과정이다.

(4) 드디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행9:1-15, 큰 핍박 중에서 바울을 꺾어 버렸다. 놀라운 일이다. 전에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예를 들어서, 감정은 한국 내려와서, ‘나는 북한으로 안 가겠다’ 하는 것. 그 정도로 큰 충격이다. 유대 나라 전체의 차세대 주자인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무릎꿇어 버렸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거짓말이다. 거짓말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발악이다. 발악에 두려워하지 마라. 병든 자 있는가? 두려워하지 마라. 병마와 싸우시기 바란다.

(5) 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행10:1-45, 드디어 로마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핍박이 일어나는데, 로마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알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사십일 동안 이것을 알려준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알려주신 것이다(서론). 그러니, 얼마나 새로운 인생을 바르게 살게 되겠는가.

4. 시급성

네 번째다. 교회의, 교해야 할, 시급성을 알고 있었다. 시급성이 무엇인가?

(1) 지금 큰일 났다. 똑같이 뉴 에이지, 프리메이슨처럼, 행13장, 16장, 19장에 다 빠져 있다. 유럽이 여기에 빠져 있다. 일본과 모든 나라들이 여기에 빠져 있다. 여러분이 간지러 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라. 세계복음화를 하라.” 이러면 못 한다. 그러면 낙심해야 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렇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속에 내 인생을 드리라는 것이다.

(2) 행17:1, 18:4, 19:8. 시급하다. 후대다. 회당이다. 바울이 중요한 것, 영적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리로 파고든 것이다. 시급하다. 이 일에 정말로 여러분이 언약을 잡는다면,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응답을 여러분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진짜 오늘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아신다. 조금 덜 중요한 것은, 마귀도 안다. 마귀도 여러분이 거짓말하는지 아닌지 다 안다. 진짜라면 도망가

버린다. 여러분, 진짜로 이 엄청난 것을 가지고 후대 살리겠다 하는 것이 진짜라면 마귀는 도망가 버린다. 어렵지 않다.

(3) 보라. 행19:21,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시급하다. 행23:11, “로마에서 증거하여야 하리라.” 행27:24,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시급하다. 이 속에, 우리가 언약을 잡고 가는 것이다. 나는 우리 교단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다.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다. 한국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다. 북한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다. 사실은 걱정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여러분이 언약만 굳게 붙잡아라. 거짓말을 붙잡으면 안 된다. 거짓말을 붙잡으면 속는 것이다. 사기꾼의 말을 들으면 속는 것이다. 왜 사기를 당했나? 사기꾼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살인범을 도와주면 살인범이 된다. 죽인 사람을 안 도와줘야지, 도와주면 같은 살인범이 된다. 우리가 거짓말에 속으면 사기꾼이 된다. 틀림없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알고 있었다.

5. 목표

마지막 다섯 번째다. 목표, 가지고 있었다. 정확하게 이것을 알고 있었다.

(1)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2) 이 땅을 떠나서는 보좌에 앉게 되는 것이다.

확실한 목표가 있었다. 성경의 모든 것이 성취되었는데, 여기는 아직 못 가봤다. 그러던 성경에 약속되어 있다. 지옥, 천국을 우리가 못 가봤는데, 성경에는 약속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다. 지금부터 우리가 언제까지 참는가?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언제 뛰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러면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이 임하게 된다. 이때부터, 많은 불신자들이 받는 축복은 비교가 안 되게 된다. 이것을 회복해야 한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자라나는 램넌트 가운데 참 정치인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증인될 만한 사람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결론

결론을 맺겠다. 여기에, 행2:1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을 꼽아라고 한다면, 사도 말고는 브리사가 부부다(행2:10). 이 사람들이 남긴 중요한 업적이다.

(1) 롬16:19이다.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 나를 바꿔라. 롬16:19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는가?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하라.”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다. 땅하는 사람들은 선한 일에 미련하고 악한 일에 너무 지혜롭다. 그렇지 않다. 아니, 도둑놈들을 보라. 어찌다 도둑질한 사람 말고, 교도소 여러 번 갔다든 도둑놈을 보라. 올바른 일을 하는 데는 바보인데 도둑질을 하는 데에는 천재다. 참 희한하다.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다. 오늘부터 나를 바꾸는 축복을 누리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2) 롬16:20이다. 현장을 바꿔라. 어떻게 말인가? 사단이 발 안에 무릎꿇게 될 것이다.

(3) 롬16:25-27이다. 무엇을? 미래를 바꿔라.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다.

자, 이 브리사가 부부가 받은 축복이다. 사실 여러분 교회의 고민이 무엇인가? 교회의 고민이 주로 어떤 것인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일의 문제를 꼽자면, 뭔가 부족하다는 것일 것이다. 예산이 부족하고, 삶이, 경제가 어렵고, 그게 제일 고민일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성공자의 정신을 먼저 가져야 한다. 성공자의 정신을 우리에게 심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각오하라. 전 세계에 있는 램넌트들, 중직자들, 기도를 시작하라. 성공자의 영적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성공자의 삶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들은 많이 성취되기 시작한다. 이 축복을 받으라.

한 마디로 결론을 내겠다. 전 세계는 전부 거짓말을 하고 속고 있다. 그들을 빨리 살려내라(서론-(1)). 그 축복을 누리도록,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제대로 된 축복을 누리려 한다(서론-(2)).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이것을 지속하는 것이다. 그러면 틀림없이 성경에 있는 응답이 오게 된다(서론-(3)). 아무도 모르고 있다. 교회만 바로 서면 나라는 바로 서게 되어 있다. 교회가 바로 서면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그것도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찾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여러분이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에는, 또 다른 많은 응답들이 성취되게 될 것이다. 진짜로 농친 것을 찾아라. 여러분, 마음 속에 답이 오는가? 마르틴 루터가 붙잡은 것을 찾아라. 바울이 붙잡은 것을 찾아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는 자는 실패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표 속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일을 누리지만 하면 성취되게 되어 있다. 이 축복을 교회가 지속해야 한다. 언약을 붙잡고, 오늘부터 걸음마다 응답받으시기를 바란다. 다시 이야기한다. 앞으로 여러분과,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한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응답이 올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요 소원이다. 이것을 다 놓치고 있으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 여기에 주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이유와 내용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해부터, 성공보다 더 큰 성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경제 축복보다 더 큰 경제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복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빨리 우리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불신자 상태에서 벗어나는, 나를 치유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